

## 학생독립운동 90주년...홈페이지 정보가 오류 투성이?

입력 2019.11.02 (07:02)

취재K



"침체한 독립운동을 진작시키고 상해임시정부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백범 김구의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현재에도 학생독립운동은 3·1 운동, 6·10만세 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에 시작해 전국 320개 학교 5만 4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속된 이들만 1천 462명에 달했고 퇴학이나 무기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도 2천 912명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 소식에 3·1 운동 뒤 침체해 있던 북간도와 만주, 중국과 일본, 미주 지역 등 해외 지역에서까지 독립운동의 힘을 재집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광주학생운동 기념관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 반응은 싸늘합니다. "쓰쓸하죠. 첫 페이지에서 항목이 잘 보이지 않아서 교육 관련해서 도움이 될 거 같지 않아요." 31살 고은지 씨가 광주학생운동 기념관 홈페이지를 보고 난 뒤 소감입니다. 또 휴대전화로 홈페이지 접속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림이 글을 가리고 글이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다"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0살 서연옥 씨 역시 "매우 잘 만들더라도 교육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야 교육적 가치가 있겠냐"면서 "홈페이지 영상 자료는 좋은데 (글로 설명된 자료도)오타를 수정하고 첨부 자료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광주학생운동 기념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습니다. 학술마당 항목의 역사 자료실의 게시물들을 살펴봤더니 오타나 잘못된 정보, 틀린 한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보안법 관련 사건[3]' 게시물에 '은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시발점이된...', 1929년 11월 3일로 시작해야 하는 문장이 엉뚱하게 시작하는 황당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광주고보교 맹휴 반주동자 제재사건[5]' 게시물은 경찰이 '복격적으로'라는 오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목부터 첨부 자료까지 틀린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광주옥여고소녀회사건[8] 게시물과 관련 사진 자료에는 '광주옥여고'라고 쓰여 있는데 광주옥여고가 아니라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가 정확한 사실입니다. 더구나 관련 사진 자료는 제목과 사진만 게시됐을 뿐 어떤 자료인지 세부 설명은 없는 상태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유물 항목에서는 '게시물이 없습니다'란 문구만 나올 뿐 실제로 소장된 유물은 단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부실에 대한 질문에 광주학생운동 기념관의 직속 기관인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선양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그런 비판이 있어왔다"라며 홈페이지 자료에 오류나 오타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교육청에서 판결 기록문과 책자 등 관련 자료를 모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모은 자료에 오류나 오타 등이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올라갔다"고 말

했습니다. 국가 기록원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확인하면 발생하지 않을 오류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상호 비교를 통해 오류를 확인했지만, 지금껏 수집한 자료가 많아 한 번에 교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 봄까지 아직 편성된 예산과 인원은 없지만 어떻게 자료를 보완할지 방향성이 잡히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재 결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올해만 약 8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관련 예산은 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었고 지난해는 한 달에 8만 8천 원만 예산이 전부였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도 자료의 오류 수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내일(3일) 제 9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오늘(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 시도 학생 대표와 해외 학생 등 372명 등이 모여 전국 청년 학생 문화예술 축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함께 열립니다. 또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격상돼 열리는 기념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각계 대표 등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념일 당일을 축하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읽히는 정보가 오류투성이인 상황에서 하루 반짝 행사가 아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이 광주광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인지도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25%, 중학생의 25.8%, 고등학생의 26.6%만이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전현우 기자 [kbsni@kbs.co.kr](mailto:kbsni@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

저작권©KBS뉴스(<http://news.kb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